◇동문초대전을 본 소감과 제언

이 석 우
〈문리대 교수 · 서양사〉

10000이란 숫자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아주 뜻깊은 숫자로 여겨져 왔다. 서양에서는 로마천년, 천년왕국이란 말을, 동양에서는 수이천세(壽齡千歲), 천천세세라는 말을 매우 상서롭고 영원을 비유하는 뜻으로 써왔다.

같은 맥락에서 대학주보 발간 1천호는 많은 이들의 기대와 상한 속에 몇가지 기념행사 진척을 마련하였다. 그 중에 경희 출신 미술인과 본교 재직 교수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정성을 모아 '동문초대전'을 연 것은 참으로 의미있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언제부터인가 대학캠퍼스에는 문과 냄새, 정서가 사라지고 구호와 외쳐댄, 화염병 냄새와 스크커의 소음이 가득하게 되었다. 사람과 남만, 예술적 자유의 추구를 감상주의자들의 관념적 사치로 몰아붙이고 빈면 투쟁과 대결, 변혁의 주창만이 참신한 가치중심으로 여기는 풍토로 바뀌고 말았다.

물론 대학이 80년대의 어두운 시절을 거치면서 우리가 얻어낸 것도 많고 역시의 용트림이 무엇이며 민중의 참여와 외식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산 역사를 증언을 해온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가 얻은 것이 있는만큼 잃어버린 것이 많다는 사실도 인지해야 한다. 대학은 어디까지나 학문과 진리탐구의 주체이며, 그것을 연마하여 다음세대를 맞는 역할이 더 중요하였다.

대학은 이제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찾을 때이다. 역사는 과거를 먹으며 살아 왔고 과거를 축적하여 오늘이 있고 오늘을 준비하여 내일을 맞는다. 과거는 민성의 소재는 물질만능 버려야할 유산은 아니다.

이 시점에서 대학의 정서를 되찾아야할 필요가 절실하며 이번 '동문초대전'이 그 같은 계기를 마련하는 이벤트가 되길 염원한다.

빈부의 차를 줄이고, 체제와 사회경제적 모순을 척결하려는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아름다운 삶, 사람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이다. 그런 의미에서 생존수단의 충족은 어디까지나 삶의 방편에 가까우며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생의 본원적 성취는 삶의 존재방식에 있다기보다는 존재의 의미와 보람에 있다. 우리는 때로 구도 부인할 수 없다. 바람직한 대학문화에 흥건하게 젖어 삶의 여유와 또다른 가능성을 익힌 사람은 사회에 나가서도 건강한 정서와 문화를 함수할수 있다. 어느결에 이 시회야는 참의적 문화는 쇠퇴하고 혹자적 오락이 만연해 가고 있다. 오락실을 가득 메운 군상들이, 시도때도 가리지 않고 고스톱등 노름판을 벌리는 사회자태들, 지나친 섹스권향의 문화는 우리를 얼려서 한다.

이번행사의 의미는 대학주보가 활자매체를 통해서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문화행사, 시각예술을 통해서 도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 주었다는데 서도 큰 의의를 찾아야 할것이다. 세계의 유수 언론사들이 미술공모전이나 신춘문예현상공모를 하는것도 문화영역에서의 독자와의 공유영역을 넓히려는데 그 뜻을 두고 있다. 더구나 회화, 음악, 조각 도예 산업미술, 건축풍의 다양한 영역을 참조적으로 개척하고 있는 대학문화가 그들의 성과를 참지면에 결집하고 상호교류 확산의 점을 마련하는 일은 지극히 바람직한 일이다. 앞으로 이런 행사를 연례적으로 개최할 수 있으면 하는 바램이 크다.

그같은 예술분야의발표기회를 갖기 위해서도 그 발표광간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앞서가는 외국대학의 경우 강의연구실 못지 않게 종합문화 센타를 건설하고 거기에서 연극, 음악, 영화, 미술 전람회, 무용발표회를 수시로 갖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있다.

사실 유수의 기업체들이 자신들의 이미지 개선과 대학의 인력공급에 대한 보상적 차원에서라도 그 같은 문화센터건립을 위한 기부금의 회사에 인색해서는 안될 것이다.

예술은 이룰수 없는 우리의 열망을 표현하는 것이며 그것을 통하여 진실에 이르고 개인의 자유를 확보한다. 현실에 발을 딛고 사는 우리의 유한성은 예술을 통하여 자유의 날개를 달고 비상하게 되는 것이다.

이번 행사에 참여하여 준 64분의 작품들은 수준높고 깊은 정성이 담겨있다. 더구나 대학을 졸업하고 그동안 가파른 작품활동을 해온 작가들과 우리모두 함께 만나는 감격의 기회이기도 했다.

이제 복지회관동의 건물이 마련되면 거기에 전시관이 마련되리라는 기쁜 소식이다. 이런 행사가 더 자주 열렸으면 하는 바램이 크다.

이 일을 위해 헌신한 모든 이들에게 거듭 감사하고 뜻은 있었으나 참여하지 못했던 분들은 다음기회에 꼭참여 해주리라 믿고 기대한다.

정서와 낭만을 되찾자

지면 떠나 문화행사 통한 공감대 형성

기다리는 '봄'과 준비된 '봄'

데스크 칼럼

송 보 영
〈본보 특집부장〉

악법철폐 · 단체장 선거로부터 대선 준비 해야

최근 타이에서의 민주화시위를 보면서 우리의 지난 과거를 떠올린 사람들이 많았을 것이다. 지난 80년의 5·18항쟁과 87년 6월민중항쟁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다면 동남아시아의 한 나라에서 벌어진 일들이 그저 남의 일로만 느껴지지는 않을 것이다. 군대가 시민에게 총을 쏘고 시민이 그에 대한 진상규명과 처벌을 강력히 요구하는 광경은 지나간 우리 역사의 축소판을 보는 듯 하다. 물론, 그들이 앞으로 개헌을 하고 선거를 치르면서 얼마만큼 독재를 청산할지는 더 두고보아야 하겠지만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 씁쓸함을 지울수 없다. 지난 과거에 바삭한 빠아픈 고통의 과정을 겪었으면서도 아직도 답보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 때문이다.

지난 87년 거세게 일어났던 6·10항쟁은 6·29선언이라는 결과를 받아내었고 개헌과 대통령선거를 쟁취하였다. 실로 민중의 힘을 폭발정면 소중한 기회였다. 그러나, 그 승리를 보수 야당의 분열로 인해 현재의 6공화국에 넘겨주었다. 그러나 그렇게 뼈아픈 교훈을 준 6공화국의 탄생도 이제 그 마무리의 시기에 들어서고 있다.

그리고, 간간이 노대통령의 레임덕 현상이 들리기도 한다. 그러한 6공 중반의 시점에서 되돌아볼때 -총선에서 이미 평가를 받았지만-6공화국은 대다수 국민의 염원과는 다른게 변질되어 버렸음을 알수 있다. 비록, 경제성장에 있어서 상징이라 한지 6공6년을 정박아지지 않더라도 가장 큰 잘못은 3당합당이다.

지난 13대총선 결과 여소야대의 국회를 이룩해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정부회도 열었고 정부의 안건을 부결시키는 등 나름대로의 의회 활동을 벌이면서 민주주의 맛(?)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그러나, 구국의 결단이라는 미명하에 3당이 합당하였고 국회는 다시 여당의 독주와 날치기통으로 무용지물이 되어 버린 것이다.

한편, 정부의 탄압도 국민의 비판은 아니었다. 지난 5월24일은 정원식 총리가 취임7주년을 맞이하는 날이었다. 지난해 오월 강경대의 죽음이후 노재봉총리의 후임으로 임명된 지는 6월초기에는 문교부장관으로서 지금은 총리로서 6공을 이끌어 가고 있다. 우리는 그를 통해서도 6공의 단압방식의 단면을 볼 수 있다. 6공초기에는 문교부 장관으로 약 1천5백여명의 교사를 거리로 내몰았고 지난해에는 6·3외대사태로 국가안정에 이바지(?)한기도 하였다. 지금 그 교사들은 아직도 거리에 있고 달걀과 밀가루로 항의했던 학생들은 감옥에 갇혀있다. 때로는 강경하게 때로는 약한게 민중운동세력을 탄압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그 이외에도 각종 악법을 통해 구속을 통해 수많은 양심수를 만들고 있다. 심지어 서서연과 같은 학문의 자유침해, 한노당같은 합법적인 정보활동마저 통제하고 있는 실정이다. 얼핏보기에는 5공때와 달라진 것이 크게 보이지 않는 듯하다. 그렇다면 6·10항쟁과 지난해 오월거리에서 수많은 시민이 흘린피는 무의미한 것이었나? 우리의 현대사에서 5월과 봄은 역시의 중요한 분수령을 이루고 있다. 5·16, 5·18, 지난해의 오월투쟁, 더나아가 4·3과 6·10항쟁에 이르기까지 질곡의 역사위에 많은 대가를 치르면서 한걸음 한걸음 발전해 왔다. 물론, 그 희생에 비해 현실은 그리 밝지는 못하지만, 한 시인의 말을 빌지면 '봄은 왔지만 혁명은 오지 않았다'라고 할 수 있다. 6·10항쟁도 9년 5월의 봄도 우리에게 찾아온 '봄'인 것이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 외적으로는 소련이 몰락한후 각방면마다 보수회경향이 뚜렷해지고 민족주의와 민주화의 물결이 세계도처에 일고있다. 안으로도 남북기본 합의서가 발효되는등 화해분위기속에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부산한 때이다.

진보이념이 소련의 몰락으로 많이 쇠퇴한듯 보이지만 그래도 지금은 다시 찾아온 '봄'인지도 모른다. 그동안 우리에게 지난 87년도와 91년의 오월달이 그러했듯이 준비된 봄이어야 한지 바라고 기다리기만 했던 봄이었다. 봄은 때가 되면 찾아오지만 혁명은 그저 오지 않기 때문이다.

여당과 야당들은 이미 대통령후보경선을 끝내고 서서히 선거준비에 들어가고 있다. 오히려 그들은 정치자장흥이라는 미명아래 더욱 절박한게 다가오는지 모른다. 열사들을 추모하고 민자당 타도를 외치던 오월이 지나고 있다. 우리에게 봄이 왔지만 준비하고 조직하지 않는 한 진실로 바란는 '봄'은 오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악법철폐와 단체장선거 실시, 총액임금제 철폐로 부터 시작할수도 있다. 더나아가 대선을 준비하기위한 고민과 단결도 그중 하나가 될수있다. 그것은 지난 어두운 과거를 복권하는 일이며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잘못된 역사를 다시는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함인 것이다.

'경희'의 자랑될 천문대

— 본교 천문대 운영에 관한 제언

Ⅰ. 서론

경희대에 훌륭한 교내 천문대가 솟아올 문을 연다는 소식을 듣고 천문학자의 한 사람으로서 반가움을 표시함과 아울러, 경희대에서 2년간 '우주와 인간'이라는 교양 천문학 강의를 맡았던 경험과 한국아마추어천문학회의 현황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한다.

경희대 수원 캠퍼스에 위치한 천문대(이하 본 천문대)는 다음과 같은 확실한 두 가지 장점을 지니고 있다.

그 첫번째는 이번에 설치되는 구경 30인치 망원경은 소백산 연화봉에 있는 천문대 소속 24인치 망원경보다도 6인치가 더 큰 국내 최대 구경의 망원경이라는 것이며, 둘째는 서울 근교에 위치하여 우리나라 인구의 1/4이 거주하는 서울에서 30~40분 거리의 위치에 놓여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천문대는 다른 사립대학에서 찾아 볼 수 없는, 투자자와 기획자의 집념이 담겨있는 과감한 투자와 싸일새있는 설계에 의하여, 본 천문대는 수려한 외모와 건물까지 보유하게 되었다. 따라서 앞으로 치밀한 계획하에 운영만 된다면 본 천문대는 경희대학교 대외 이미지의 획기적 상승 효과와 학생들과 교직원들의 긍지와 자부심 고양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곧 열릴 우주시대의 선구자 역할 등에 결정적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Ⅱ. 본론

서론에서 제안한 세 가지 사항을 한 가지씩 보충 설명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희대학교 대외 이미지의 획기적 상승 효과에 관해서 살펴보면, 본 천문대는 서울 근교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 시내 초·중·고등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매주 공개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다. 이는 국내 어느 관측 시설에서도 흉내낼 수 없는 장점으로써, 최근에 강조되는 살아 있는 과학교육 운동과 완전히 맥을 같이하고 있다 하겠다. 따라서 최근에 위기감마저 감도는 초·중·고등 학교 전문화 교육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어, 특히 교육의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교사들의 인정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초·중·고등 학생들의 70% 이상이 전체 망원경을 통하여 우주를 한 번 보는 것이 소원이라는 통계를 감안할 때, 국내 최대의 전체 망원경에 비친 우주의 모습을 보여주어 수많은 어린 학생들의 가슴에 평생 못 잊을 추억을 남겨 줄 수 있는 일은, 경희인의 자랑이 될 것이 분명하다. 여기서, 가능하다면 학교 버스로 고등연까지 제공하는 대신 최소한의 경비를 징수하여 천문대 운영 기금에 보탤 수도 있을 것이다. 아울러 한국아마추어천문학회나 한국우주소년단같은, 몇 년 후에는 회원 수가 10만을 넘게 될 잠재 역량을 가진 거대한 우주 관련 단체들의 총본산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도 확신한다.

둘째, 경희대학교 학생들과 교직원들의 긍지와 자부심 고양에 커다란 한 몫을 차지할 것이다. 최근 교양 과정에서 천문학 과목인 '우주와 인간'에 500명이 넘는 학생들이 매학기 수강을 하고 있다. 이는 2.3년 전과는 비교가 안 되는 수치로서, 우주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현황을 단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작년까지만 해도 경희대는 서울 시내 주요대학 중 유일하게 아마추어 천문학 동아리가 없었던 학교였다는 점을 감안하여 보면, 이는 실로 놀라운 변화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경희대 학생들 모두에게,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최소한 '우주와 인간'을 수강하는 학생들만이라도 타교와 시설과는 비교할 수 없는 본 천문대를 견학하도록 하여 경희대학교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심어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일반 학생들도 이러할진대 우주과학과 학생들의 시기는 또한 얼마나 올라가겠는가. 아울러 전 교직원들은 물론 지난해까지 본 천문대를 멀리 최소한 '우주와 인간'을 수강하는 학생들만이라도 타교와 시설과는 비교할 수 없는 본 천문대를 견학하도록 하여 경희대학교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심어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일반 학생들도 이러할진대 우주과학과 학생들의 시기는 또한 얼마나 올라가겠는가. 아울러 전 교직원들은 물론 지난해까지 본 천문대를 주시대의 선구자 역할에 관한 것이다. 서론에서도 분명히 밝혔듯이 본 천문대의 망원경은 국내 최대의 구경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 국내 어느 대학, 어느 연구소에서 수행된 연구 결과보다도 나은 것들이 경희대 우주과학과 대학원생들에 의하여 이루어지리라 확신한다. 또한, 본 천문대가 넓은 안목하에 관측

과감한 투자와 우주시대 내다본 안목의 결정체

공개 프로, 적절한 운영 통한 자긍심 고취로 한몫

어린 학생들이 꿈을 키우는 요람이 되도록 하면, 학내 분위기 쇄신에도 크게 기여를 하은 물론 용단을 내리고 과감한 투자를 아끼지 않은 학교 운영진에 대한 신뢰도도 많이 올라가리라는 믿는다.

세째, 우리나라에 곧 열릴 우주시대라는 말은 아직 우리 한국 사람에게는 남의 나라 일처럼 틀릴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스티븐 호킹(Stephen Hawking)의 경우를 생각하여 보기 바란다.

매스콤의 위력은 오늘날 사람들이 그의 이름은 모른다 할지라도, 적어도 반신불수의 천재 천체물리학자가 있다는 사실은 다 알도록 만들어 놓았다. 이번 KITSAT도 우리나라의 우주에 관한 관심도를 획기적으로 바꾸어 놓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비단 KITSAT만이 아니다. 국내의 이런 동향을 반영이라도 하는 듯, 최근 KBS 1-TV에서는 '우주국의 인공위성 KITSAT이 우주궤도에 올라가게 되어 드디어 우리나라에도 우주시대가 열리게 되었다'는 뜻의 '우주의 신비', SBS-TV에서는 '우주로 가자'라는 다큐멘타리가 절찬리에 방영되어 어린이들의 가슴을 설레이게 하고 있다.

우주시대는 이제 우리의 코 앞에 닥쳐 있다. 이글을 통하여 우주시대에 대한 '경희인'의 관심이 더욱 고양되고, 여타 대학들보다 우주시대를 앞서 나가길 바란다.

과감한 투자자의 결실인 본 천문대의 가치가 찬란한 빛을 발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박 석 재
〈본교 강사 · 우주와 인간〉

우리의 위대함을 외친다

우리의 위대함은
9살짜리 꼬마가 만개의 단어를 외우는 천재성에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위대함은 타인의 배 위에 자신의 발을
올려놓고 하늘 높이 승리를 외치는 정복에
있지도 않다.

우리의 위대함은
산의 숨결을 느끼고, 강물의 교동소리를 들으며,
아름다운 것을 "아름답다"고 말하고,
날개가 없어도 하늘을 나는 꿈을 꾸는 이상을
갖는데 있다.

태양의 정열이 온 세상을 빛내는 6월
주변의 모든 자연을 몸 안으로 빨아들이자!
그 속에서 우리의 위대함을 외쳐보자!

캠퍼스의 6월은 자연의 정수를 모아 마시며,
새로운 시작을 위해
한학기를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문화달력은 이렇게 활용됩니다.
여러분들이 마련한 소중한 대학행사를 알리기 위해 현代그룹이 제공해 드리는 문화달력이 보내주시는 자료로 만들어집니다.
널리 소개하고 싶은 문화행사가 있으면 행사 전달 25일까지 現代그룹 文化室(서울 종로구 계동 140-2, 전화 746-3347)로 알려주시면 성실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現代